

사라져가는 옛 고향의 생생한 복원

「한국의 고향」 전20권 10년만에 완간한 사진작가 김수남씨

사라져가는 우리 옛 고향의 현장을 생생하게 복원한 사진집 시리즈가 완간됐다.

중견작가 김수남씨(46)가 20여년 동안 전국의 고향을 돌며 찍은 사진들을 한데 모은 '한국의 고향'(열화당) 시리즈가 그것으로, 1983년 첫 책이 나온 이래 최근 그 20권째가 출간됨으로써 10년만의 전20권 완간이란 대역사가 비로소 마무리됐다. 종래의 무속 관계 사진들이 대개 무속에 대한 글을 보충 설명하는 단순한 참고자료 이상이 못됐던 데 반해, 무속의 본질적 의미와 품위, 그리고 그 아름다움까지를 효과적으로 포착해내고 있는 이 책은, 고향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감동'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한국의 고향' 시리즈 첫째권에 실린 출판사측의 다음과 같은 선언의 당당한 자신감은,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무속이 어찌해서 우리 문화의 고향일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고 느끼게 하기 보다는 사라져가고 있는 관광자료에 불과한 민속이나 미신이라고 설명하려는 무속사진들이 더이상 쏟아져나오기 전에, 전국의 무속을 정리하고 무속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아울러 보는 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을 만큼, 아름답고 예술적인 무속 사진집의 출간 또한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진예술가로서의 일에 대한 열정과 감수성, 무속에 대한 깊은 이해, 무속문화와 가까운 민중의 삶에 대한 애정과 외경심, 끈질긴 참음성과 부지런함 등,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고루 갖춘 성품의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이에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이, 사진작가 김수남이 그렇듯 힘든 일을 해내었다. 그는 글보다는 사진으로 우리 무속의 진면목을 전달해 줄 줄 아는 한 사진예술가로서, 적어도 무속에 관심 있는 학자나 몇 남지 않은 정통 무당들 사이에서는 카메라를 멘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사진으로 재현한 전통 고향의 현장

'한국의 고향' 시리즈가 책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0년전인 1983년부터이지만, 정작 김수남씨가 본격적으로 고향사진에 뛰어들어온 것은 그보다 또 10년전인 1973년경의 일이다. 당시 월간 「세대」지의 기자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는, 바로 전혜의 유신으로

말미암아 근대화의 구호 아래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것들에 짙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미신타파의 대상이 돼버린 고향의 사진적 재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동안 우리의 무속은 때로는 미신타파의 대상이 되어 음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어설피게 무대 위에 올려지기도 했다”고 비판하는 그에게 있어 고향의 이미지는 “숨겨야 할 치부도, 화려한 무대예술도 아닌 일상 속에 용해되어 함께 이어져온 우리 삶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고향사진에의 관심은 1975년말 동아일보사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도 계속되며, 1981년 언론인들에게 주어지는 '신영연구기금'을 받을 즈음엔 한반도의 거의 모든 고향을 한번씩은 다 돌아본 상태에 이른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김수남씨는 자신의 작업이 책으로 햇빛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책으로 내더라도 한권 분량 정도가 고작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당시의 그로서는 “기록으로나마 남겨두자”는 게 보다 솔직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고향' 시리즈에 수록된 사진들 대부분이 컬러가 아닌 흑백사진인 것도 다 그 때문이다. “한 20년정도 지나야 빛을 보겠지”라고 생각하던 그때의 그로서는 사진의 보관과 수명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그의 작업이 '한국의 고향'이라는 20권짜리 시리즈로 출판되게 된 계기가 열화당이 기용사장과의 만남이었다. 1982년 김수남씨는 바로 전해에 받았던 신영연구기금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찍어두었던 고향 사진을 프린트해서 정리해두고 있었는데, 어쩌어쩌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기용사장과 함께 장시간 그 사진들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냥 한번 훑어보고 말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때만 해도 아직 프리로 나서기 이전의 직장생활에 얽매인 몸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이기용사장께 사진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12시쯤부터 시작된 사진 검토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나는 겁니다. 그러곤 이기용사장이, 본격적 사진집 출력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던 당시로선 상상도 못했던 제안을 하더군요. 20권짜리 시리즈로 출판하자구요. 열화당이란 출판사를 만나게 제



제10권 「웅진 배연신굿」에 수록된 한 장면.

겐 행운이었던 셈입니다.”

사계 전문가들의 연구논문도 함께 수록

김수남씨의 오랜 작업이 출판사측의 '어려운' 결심을 만나 이듬해부터 마침내 '한국의 고향' 시리즈가 차례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물론 오래전에 이미 찍어두었던 사진들이라고 해서 책으로 묶어내는 일이 마냥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대강의 골격은 짜여져 있었지만, 책으로 내면서 상당 부분을 보충하거나 아예 통째로 다시 찍은 것들도 많았다. 전체적인 고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 치중하는 한편, 사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일일이 연구논문을 받아 책 뒤에 수록, 보고 읽고 느끼고 아는 고향 사진집이 되도록 배려했다. 다음의 목록이 바로 그 결실들이다. (괄호 안은 글쓴이)

- 제1권 황해도 내림굿(김인회·최종민)
- 제2권 경기도 도당굿(황루시·이보형)
- 제3권 제주도 영등굿(장주근·이보형)
- 제4권 수용포 수망굿(김인회·정진홍)
- 제5권 평안도 다리굿(황루시·김영규·이보형)
- 제6권 전라도 셋김굿(황루시·최길성)

- 제7권 제주도 무흔굿(현용준·이부영)
- 제8권 함경도 망목굿(임석재·김정녀·이보형)
- 제9권 울산 별신굿(임동권·최명희)
- 제10권 웅진 배연신굿(황루시)
- 제11권 강사리 범굿(하효길·황효창)
- 제12권 제주도 신굿(현용준·이남덕)
- 제13권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이두현·임돈희)
- 제14권 통영 오귀새남굿(정병호·서대석)
- 제15권 서울 당굿(황루시)
- 제16권 거제도 별신굿(황루시)
- 제17권 황해도 지노귀굿(김인회)
- 제18권 위도 떠배굿(임석재)
- 제19권 강릉 단오굿(김선풍)
- 제20권 서울 진오기굿(조홍윤·이보형)

인간적으로 친해지기가 촬영보다 어려워

찍어놓은 고향사진을 책으로 묶는 일이 출판사의 이해와 성원을 만나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데 반해 사진 촬영 자체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요즘이야 웬만한 고향판만 해도 오히려 사진 찍는 이들로 더 많이



서울 효창동 자택의 2층 작업실에서의 김수남씨.

복작대지만 김수남씨가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할 때 말 그대로 혼자였다. 특히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엔 굿판을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서낭당과 당나무를 있는대로 없애고 무당들을 경찰서에 집어넣는 상황에서 카메라를 들러면 그는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미신’의 현장을 증거물로 남기는 작업이 아닌가 해서 기피당하고, 굿판을 벌리는 행위 자체가 알려지는 게 싫어서 기피당했다.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사진을 찍기 위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일에 참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마을굿을 올리는 시골 동네의 어른들이나 유명한 큰무당들한테는 제 부모님보다 더 자주 문안전화를 했을 정도니까요. 전화 사정이 좋지 않던 70년대에 한달 월급이 고스란히 전화요금으로 날아가버린 경우도 부지기입니다. 나중에는 마치 한 동네 사람처럼 돼버려서 경조사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굿판에의 접근도 자유로워지고 사진도 제대로 나오게 되더군요.”

‘인간적 감정’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가령, 셋김굿의 경우, 이제 막 땅자를 땅 속에 묻고 돌아와 벌이는 ‘슬픔의 현장’에 플래시를 터뜨리며 카메라를 들이대기란 여간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선 안되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현장에서 느끼곤 하는 곤혹감을 맞본다.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우리의 무속현장을 누비고 다닌 탓에 이제 그는 웬만한 학자들 못지 않은 굿 전문가가 돼 있다. 워낙 오랜 세월을 굿사진 촬영에 바쳐 내로라하는 큰무당들과도 다 친하게 알고 지내는 데, ‘한국의 굿’ 시리즈에 담긴 큰무당 가운데 40% 가량이 이제는 고인이 된 것을 아쉬워한다. “큰무당은 없고 선무당만 늘어난다”고 말하는 그는 왕년의 큰무당들에게서 굿판을 휘어잡는 강력한 리더십, 세세한 굿의 절차와 길고 복잡한 사설을 외는 대단한 기억력, 그리고 전통예인으로서의 ‘끼’를 발견한다. 통속적으로는 이른바 무당들의 신통력도, 현대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전폭적으로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종종 경험한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한국의 굿은 어떤 모습일까? 제10권 「웅진 배연신굿」의 말미에 실린 오운 이재주 채희완

최태현 하중오씨 등과의 좌담에서 김수남씨는 연회로서의 굿보다는 신앙으로서의 굿에 보다 더 주목한다. 굿에 놀이성이 더 강하게 아닌가 하는 하중오씨의 반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전 그렇게 생각 안해요. 그 마을 사람이 아니거나 굿을 쫓아다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회적인 측면이 강하게 보이지만, 그 굿을 하는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종교예요. 믿음 때문이지 그냥 놀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아권 무속현장으로 시선 확대

연세대 지질학과 입학 당시 친척분이 선물로 사 준 “당시로서는 대단히 고가품이었던” 캐논 카메라를 그냥 썩히기 아까워 우연히 사진 일을 시작해 그만 그것이 평생의 직업이 돼버리고 만 김수남씨는 요즘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1988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무속현장은 일단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이번의 ‘한국의 굿’ 전20권 완간을 기점으로 앞으로는 해외의 무속현장을 카메라에 담은 일에 치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그

는 최근 몇년 사이 1년의 반을 나라 밖에서 보낸다. 3개월씩 두번을 해외로 나가는데, 그 사이사이의 각 3개월은 해외출장의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번의 나들이를 준비하는 일로 보낸다.

“우리 민족의 이동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 오키나와, 필리핀, 대만, 인도차이나, 인도, 히말라야, 중국 등을 이미 돌아봤고 6월중엔 시베리아 지역을 가 볼까 합니다. 한국의 굿판을 사진으로 담는 일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지역의 각종 통과례, 탈춤이나 굿판, 세시풍속 등을 점검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그의, 서울 효창운동장 근처 자택 2층 방에는 커다란 러시아 지도가 걸려 있다. 팩시밀리를 통해 해외의 지기들로부터 수시로 필요한 자료를 전송받으며 이번 6월의 시베리아 촬영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자신의 사진과 ‘물물교환’한 강희덕씨의 조각 몇점 이외엔 서가가 온통 필름들을 정리한 자료철로 가득 찬 방에 앉아 앞으로의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기 위해” 1986년 직장생활을 작파한 이래 지금까지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돈이 되는” 상업사진 쪽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드문 작가다. 그 자신이 사진작업의 본령을 ‘책을 통한 독자와의 만남’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 쪽에 두고 있어 출판이나 잡지에 관련된 사진을 주로 고집한다. 그래서 작가로서의 오랜 이력에 어울리지 않게 전시회도 단 한차례만 가졌을 뿐이다. 먹고 사는 일의 해결에 대해서는 그저 “원고료 많은 일을 위주로 한다”며 가볍게 받아넘기지만, 이 땅에서 상업사진을 하지 않으면서 ‘프리’ 혹은 ‘프로’로 뛰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일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의 피사체가 되었던 큰무당들처럼 자신의 일에 신명을 느낀다. 아무데서나 잘 먹고 자고, 사람사귀는 데도 능한 천성이다 오랜 세월 쌓인 집념과 노력 탓에 자신의 일을 흥겹게 치러낸다. 이제 나이가 들어 젊어 한창 때처럼 “목에다 카메라를 주렁주렁 내대씩이나 걸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몇날 며칠을 밤 새워가며 진행되는 굿판의 현장을, 아직도 소주를 냉수처럼 마셔가며 버터낸다.

—강철주 기자